

THE UNITED METHODIST CHURCH
NORTH GEORGIA EPISCOPAL AREA

SUE HAUPERT-JOHNSON
RESIDENT BISHOP

JUDY IMIG-BUSH
ADMINISTRATIVE ASSISTANT

2021 년 9 월 17 일

조사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여러분께서 이처럼 중요한 일에 있어서 저희 연회를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며, 여러분께서 기꺼이 이 일을 맡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이 일에 헌신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독인 저와 감리사회 (the Cabinet) 에 김세환 목사님 건을 행정조치를 위해 재이송하셨고 (administrative referral back to us), 이제 우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리려 합니다. 크루즈 감리사님과 저는 김세환 목사님과, 그리고 아틀란타한인교회의 목회협력위원회 (the SPRC) 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감리사회와 저는 많은 숙고와 기도와 성찰 후에 김 목사님을 계속 아틀란타한인교회에서 목회하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치유와 화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중재나 다른 어떤 해결 수단을 사용하길 희망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UMC 장정은 '의로운 해결' (just resolution) 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종류의 의로운 해결 절차라 할지라도 그 해결 절차에 대해 반드시 고발인들 (complainants) 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고발인들이 결코 김 목사님을 아틀란타한인교회에서 계속 사역하게 하는 해결 (resolution) 에 동의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백합니다.

우리는 또한 아틀란타한인교회의 문화에 대해 염려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 문화는 그 교회 핵심 지도자에 의해 형성됩니다. 담임목사로서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김 목사님은 교회의 행정을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실행위원회 (the Administrative Board) 의 의장을 맡으심으로써 그러한 감독 의무를 더 크게 지시게 되었습니다. 김 목사님의 감독 하에 심각한 재정 비리가 발생하였고,

우리가 아틀란타한인교회에서 발견한 교회 문화는 막무가내이고 (obtrusive), 비협조적이며, 무례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전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감사관들과 임시담임목사들, 그리고 조사에 참여한 다른 분들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틀란타한인교회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연회와 아틀란타한인교회가 사역에 있어서 서로 신뢰하는 동역관계 (a trusting partnership) 을 맺을 필요가 있다는 여러분의 평가에 동의합니다. 그러한 목표를 위해, 우리는 조영진 은퇴감독님이 11 월 1 일부터 내년 7 월 1 일까지 아틀란타한인교회의 임시담임목사로 섬기실 것을 수락하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 감독님은 현명하시고 영적으로 성숙하신 기도의 사람이십니다. 아틀란타한인교회 목회협력위원회와 그 위원들은 UMC 한인 목회자들과 교인들 사이에 널리 존경받는 분이신 조 감독님을 환영할 것입니다. 정민호 목사님은 그동안 아틀란타한인교회의 상황을 안정시키는 놀라운 역할을 수행하셨고 이 혼란 속에서 신뢰받는 목소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정 목사님은 내년 7 월까지 젊은 세대와 함께 그의 선한 일을 지속해 나가도록 아틀란타한인교회에 머무르실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김 목사님과 그의 치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파송이 가능한 한인교회는 라그랜지한인교회 (Korean Church of LaGrange) 하나 뿐입니다. 연회는 김 목사의 직접적인 사례비 (direct compensation) 가 아틀란타한인교회에 계실 때보다 1 만불 정도만 감소되도록 김 목사님의 사례비 패키지에 연회 지원금을 더해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김 목사님이 우리 연회의 Clergy Effectiveness Committee 와 만남을 갖으시도록 할 것입니다. 이 위원회가 하는 일은 처벌이 아니라 목회 지도력의 자질들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것과 그 밖에 목회자들의 다른 관심 분야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지금까지 다른 목회자들에게 대단히 큰 도움이 되어왔기 때문에 김 목사님께서도 이 위원회의 안내와 지도에서 도움을 받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조영진 감독님과 정희수 감독님께서 도움을 주신 것과, 또한 두 분 감독님께서 앞으로 아틀란타한인교회의 새 담임목사를 선택하는 문제와 또한 김 목사님께서 Clergy Effectiveness Committee 프로그램을 마치신 후에 새로운 파송을 받으시는 문제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저를 도와주실 것임을 여러분께 알려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또한 우리가 연회 내의 다른 한인 교회들과 긍정적이고 신뢰하는 관계를 쌓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 것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해밀턴밀한인교회 (The Korean Church at Hamilton Mill) 는 최근에 UMC 의 구조와 책임성 (accountability) 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고 앞으로 우리와 미래를 함께 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정민호 목사님과 김미리 목사님은 이러한 관계적인 일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수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고, 저는 우리가 우리 연회 내의 한인 교회들과 보다 깊고 성숙한 관계를 가지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초를 다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끝나기까지 여러분의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Yours in Christ,

Bishop Sue Hauptert-Johnson